

제5회 신행수기 당선작(현대불교신문 사장상)

부처님 가피 손목에 감돌고

이 귀 인 <서울 도봉구 상문1동>

이렇게 불교신행에 재미를 붙이고 있을 무렵 어느날 초등 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의 꿈을 꾸었다. 안개인지 수증기인지 구름같은 모양이 땅에서 몽게 몽게 피어나는 길은 산속인데 선생님은 하얀저고리 검정치마에 머리는 쪽을 짙어 올린 단정한 모습으로 나를 향해 미끄러지듯 가깝게 오시다가 싫더니 한마디 말씀도 없이 어느덧 멀어지다가 사라졌다. 은사신인 김선생님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다.

당시 초등학교는 6.25동란의 상흔이 아직도 남아있어 학교시설은 미흡하기만 했다. 초기저고리의 영성함 입시교실 흙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공부해야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어머니같이 항상 자상하셨고 깔끔하셨다. 흰색 저고리와 까만 치마, 머리를 곱게 빗어 쪽을 짙은 모습은 선생님의 트레이드마크였으며 연세는 50대로 기억된다. 조용하시면서도 속재를 안해오면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시는 엄한 분이셨다. 우리 6남매중 나와 남동생, 여동생 등 3남매의 은사사신 그 인연이 가깝다고 할 수 없다.

30여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내 꿈속에 나타나신 선생님은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냥 사라지시니 안타까웠다. 꿈의 선명함과 의문점을 간직한 채 열흘 정도 지난 어느날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은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맞는데 7명의 친구가 부부동반으로 2개월에 한번씩 열리는 모임으로서 선생님의 아들도 회원이었다. 그 친구옆에 앉아 담소하던 중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길래 꿈 이야기를 하니 그 친구도 의아해했다. 이제야 꿈에 나타나신 선생님의 뜻을 알 것 같았다. 평생을 교단에 서시면서 배울한 많은 제자중에 선생님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영가를 모실 수 있는 제자라는 생각에 꿈에 나타나셨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였다. 즉시 고향 면사무소 초적계에 전화를 걸어 선생님의 제자등본 1통을 팩스로 전송받아 조상님들의 영가가 안치된 법당에 같이 모시고 일심성정으로 기도드렸다.

그해 늦가을 생지장도량인 심원사에서 봉행하는 '조상영천도 49재 지장기도법회'에 동참. 토요일마다 찾아오던 법당에 같이 모시고 일심성정으로 기도드렸다. 산악대장은 몇 개월전부터 천왕봉을 등정하기 위해 대탈버스에 몸을 싣었다. 산악대장은 몇 개월전부터 천왕봉을 등정하기 위해 대탈버스에 몸을 싣었다. 산악대장은 몇 개월전부터 천왕봉을 등정하기 위해 대탈버스에 몸을 싣었다.

행단체를 이끌거나 모범적인 불자로 자리매김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계종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포교사 시험에도 높은 합격률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렇게 배출된 포교사들은 읍지를 알지로 바꾸는 부처님 사업에 동참하는 숨은 보살들이 될 것이라 믿는다.

99년 6월 19일 토요일 불교대학 수업을 마친 후 오후 10시, 불자산악인 모임인 금강메아리의 정기산행인 지리산 천왕봉을 등정하기 위해 대탈버스에 몸을 싣었다. 산악대장은 몇 개월전부터 천왕봉을 등정하기 위해 대탈버스에 몸을 싣었다. 산악대장은 몇 개월전부터 천왕봉을 등정하기 위해 대탈버스에 몸을 싣었다.



의 빠른 회복을 보여 2주일만에 퇴원하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세세하게 경과를 말하는 이유는 부상을 통하여 경험한 불보살님의 불가사의한 가피력을 말씀드리려 함이다.

지리산 천왕봉서 하산하다 넘어져 인대가 끊어지고 무릎뼈가 파손됐다

수술전후 아픔이나 고통이 전혀없어 불보살님의 큰 가피력이란 생각을...

중 90kg의 비만이므로 체중감량과 지리산 천왕봉 오르기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4월부터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4.19에서 북한산 대동문까지를 왕복하는 2시간의 등산을 하는 것이 출근길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그 결과 체중이 4kg 줄어 천왕봉 등산도 가볍게 오를 수 있다는 기쁨으로 버스에 몸을 싣으니 어찌 마음이 설레지 않을까?

그러나 잘 달리던 버스가 새벽 3시를 넘겨달라 하는 소리와 함께 경사도 완만한 도로위에 멈춘 후 몇시간동안 끙끙하지 않았다. 긴급조치로 함안에서 달려온 버스가 일행을 싣고 지리산을 향해 출발한 시간은 새벽 5시경. 지리산 입구에 도착하니 6시가 훨씬 넘었다. 몇시간의 등정으로 법계사에 도착한 일행은 사리탑에 모여 지도법사님의 집전으로 산성법회를 봉행한 다음, 등산에 자신이 없는 몇 명의 회원을 뒤로하고,



그림 · 이준석

응급조치를 한 후 배낭을 풀려면 제 하산하여 20여분 만에 장터쪽산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산장 관리요원에게 상처를 보여주자 깜짝 놀라며 이렇게 깊은 상처를 당하고 걷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담배수거기를 모두 꺼낸 후 소독하고 부목을 대어 상처를 고정시켜 주었다. 산장관리 요원들의 투철한 봉사정신이 고마웠다.

발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우려국갈 끝에 전리남도 소속 119원가에 탑승하여 순천에 위치한 한곡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X-RAY촬영결과 인대가 으스러져 끊어지고 무릎뼈의 일부가 파손됐으며 수술하고 6주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보호자로 따라온 회원이 수술서류에 서명하자 3층에 있는 수술실로 옮겨졌다. 전신마취를 위하여 척추에 꽂혀지는 주사바늘의 따끔할만 기억될 뿐, 눈을 뜨니 수술실 천정에 있는 수많은 전구가 사야에 들어왔다. 내일은 무어라고 중얼거리는데 다름아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나도 모르게 열송하고 있었다. 잠시후 의사가 들어와 4시간 반동안 수술하였는데 정말 잘됐다고 하면서 참 건강하시네요 한다. 순천은 연고지가 아니므로 다음 날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데 담당사도 놀랄정도

수술전후 아픔이나 고통이 전혀없어 불보살님의 큰 가피력이란 생각을...

천왕봉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옮겨 가기 두시간후 마침내 정상(해발 1,915m)에 올라서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리오. 구름은 발아래서 노닐었고 순식간에 안개가 끼고 걷히는 자연의 조화속에 신심이 된 기분이였다. 정상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역시 지리산은 명산이었다. 정상에 알리는 석주(石柱)를 배경으로 기념촬영과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장터쪽산장에서 점심식사를 하자며 급히 하산을 서둘렀다. 호사다마인가? 경관을 감상하며 하산중 돌부리에 오른 발이 걸려 넘어지며 오른쪽 무릎 연골 부위 아랫가 도끼날 같이 날카로운 울에 찌혔고, 손가락에 울컥울컥하는 소리를 내며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가로 10cm, 길이 2cm 정도 벌어진 상처는 허미입을 연상케 할 정도로 깊이 패었다. 누군가가 서둘러 담배 두 개피를 상처에 넣고 압박봉대로 동여매니 피가 멈추었다.

수술전후 아픔이나 고통이 전혀없어 불보살님의 큰 가피력이란 생각을...

천왕봉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옮겨 가기 두시간후 마침내 정상(해발 1,915m)에 올라서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리오. 구름은 발아래서 노닐었고 순식간에 안개가 끼고 걷히는 자연의 조화속에 신심이 된 기분이였다. 정상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역시 지리산은 명산이었다. 정상에 알리는 석주(石柱)를 배경으로 기념촬영과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장터쪽산장에서 점심식사를 하자며 급히 하산을 서둘렀다. 호사다마인가? 경관을 감상하며 하산중 돌부리에 오른 발이 걸려 넘어지며 오른쪽 무릎 연골 부위 아랫가 도끼날 같이 날카로운 울에 찌혔고, 손가락에 울컥울컥하는 소리를 내며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가로 10cm, 길이 2cm 정도 벌어진 상처는 허미입을 연상케 할 정도로 깊이 패었다. 누군가가 서둘러 담배 두 개피를 상처에 넣고 압박봉대로 동여매니 피가 멈추었다.

인터넷 마하몰

새 천년 새 희망

02) 732-1522 (직) 02) 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수입 만다라 옥침

수입만다라옥침은 두개의 최경구 표면에 각기 약 300여개의 표출한 옥침과 내부에 강력한 영구자석과 천연옥을 합성시켜 원적외선과 자기력을 발생하도록 만들어 졌다. 수입만다라옥침으로 손바닥의 경혈을 자극함으로써 수지침과 동일하며 옥과 자력의 상승작용으로 그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가 격 : 30,000원
■재 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0%순금도금, 웨이트 반경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대나무 숲 염색천

신라시대 경우에서 숯물로 밭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세 입은 것은 사체가 아니라 숲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온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숲을 가까이 하길 위한 것이 숲 염색천입니다. 숲 염색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인치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바른 자세 건강방식 참선명상방식

바른 자세가 건강한 정신과 편안한 마음을 만듭니다. 현대인들의 척추보호 및 교정을 위하여, 오랜시간 참선이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혁신적인 명상방식. 이전 바르게 허리띠고 건강하게 생활하십시오.

사이즈 - 가로 43 cmX 세로 38cm
실용신안 특허 공개 실 1998-025009
의정등록 출원 제 14387호

■가 격 : 27,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발우

여기 이 황토 질그릇 발우는 순수한 황토와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이 아닌 낙엽 태운 천연유약과 1300도 불의 조화로 형성된 투박하고 자연적인 운기로서도 하나의 특징이 있다. 본 제품은 해인사 승인의 철저한 공정을 거쳐 제작한 화발우(瓦鉢盂)이다.

■가격 4형 : 6만원 - 무게 2.7kg
2형 : 3만원 - 무게 1kg

불자 만다라이트 펜

불자들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만다라이트 펜입니다. 텅스텐 볼펜 심이 LED램프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산업계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작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가 격 : 25,000원
■세트 : 10개입

불자 반야반지

불자의 자긍심을 새겨줍니다. 16개의 큐빅은 보상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태두리의 광각은 팔정도 수행을 의미 합니다.

■광경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진(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심속대유력(十六大力)
지력(智力), 의력(意志力), 행력(行力), 참력(耐力), 감력(毅力), 지력(持力), 해력(解力), 덕력(德力), 변력(變力), 색력(色力), 신력(神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흥법력(弘法力), 함마력(護魔力)

■가 격 : 18K 130,000원
14K 120,000원
용량 : 16개 큐빅 / 금 15 돈
※호수에 맞게 제작하여 드립니다.